하늘에서 저절로 울리는 천상의 음악

사찰벽화 명작순례

⑧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의 악기벽화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의 악기벽화.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장엄의 정수
해남 대흥사 대웅전 악기벽화 기획적
진채로 표현한 전통 국악기의 향연
부처님 진리 설법에 대한 환희와 예경

영남의 고전주의, 호남의 낭만주의

17, 18세기 한국산사 법당장엄은 영호남 사이에 서로 대비되는 경향으로 전개됐다. 영남지역 법당장엄은 고전주의 경향이 뚜렷하다. 체계적이며 전통의 규범에 엄격하다. 건축이나 조형, 단청 등 종교장엄 전반에서 남성적인 묵직함이 있고 근엄한 분위기가 흐른다. 그에 비해 서남해안 지역의 법당장엄은 다채롭고 명랑하다. 특유의 해학과 익살이 살아있으며 자유분방한 낭만주의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부드럽고 여성적이다. 영남 지역 사찰장엄은 고전의 전통과 불교교의, 교학적인 이성에 바탕을 이룬다. 서남해안 지역의 사찰장엄에는 창조적인 재해석의 안목과 예술적 상상력, 감성이 원천을 이루는 특징을 보여준다. 영남 지역의 고전주의 경향은 봉정사, 범어사, 직지사 대웅전이나 통도사 대광명전 등을 손꼽을 수 있고, 호남의 낭만주의 경향은 서남해안 지역의 미황사, 선암사, 내소사, 천은사 등의 법당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특히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은 17, 18세기 서남해안 지역 낭만주의 법당장엄의 정수를 보여준다. 한국산사 창호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꽃살문, 맑고 따스한 빛의 단청장엄, 후불벽 뒷면의 수월관음벽화 등 사찰장엄 곳곳에 서남해안 지역의 황톳빛 서정과 따스한 질감이 스며있다.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은 빗반자와 우물반자로 조합한 궁륭형이다. 법당 가장자리는 널빤지로 엮은 비스듬한 빗반자 천정이고, 중앙부는 격자반자로 엮은 우물천정이다. 그래서 법당의 상부가 부드러운 곡면으로 둥그스름해 보인다. 사방 가장자리 빗반자 천정은 연지(蓮池)의 세계다. 빗반자 널빤지에 흰색 구름을 그려넣고, 그 위에 X자로 꼰 연꽃봉오리와 물고기, 게 등을 조각했다. 구름과 연꽃과 게를 공생의 공간에 조영한 천진난만하고 걸림이 없는 자유로움에서 해학과 상상력 넘치는 낭만을 읽을 수 있다. 연지의 본질은 화엄의 연화장세계다. 대단히 고차원적이며 초월적인 화엄의 세계를 천연덕스러운 익살로 풀어놓았다.

법당 중앙부 천정은 우물반자 천정이다. 어간 48장, 좌우 협간에 각 5장씩, 모두 58장의 우물반자로 엮었다. 어간 48장 반자에는 연꽃과 모란, 신령한 진언의 범자 종자자를 대단히 목적의식적으로 구획하고 배치했다. 중심에 배치한 진언을 연꽃과 모란으로 겹겹이 감쌌다. 우물반자 천정의 중심부에 무엇을 보장했을까? 연꽃 속에 '옴자례주례춘제사바하' 준제진언과 '옴람' 정법계진언을 심어 보장해뒀다. 지혜와 자비행, 청정한 마음, 그 셋을 고귀하게 심어 놓았다. 그것은 중생의 육바라밀 보살행과 청정한 마음을 조형화한 것으로, 〈화엄경〉을 비롯해서 모든 시방삼세 제불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삼세여래일체동'이니 모든 부처님은 둘이 아니고, 진리의 가르침도 둘이 아니다.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장엄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진언의 범자 종자자로 소중히 갈무리하고 있다.

10장의 우물반자에 11종 악기벽화

좌우 협간 우물반자 천정의 단청장엄은 대단히 이채롭고 경이롭다. 장엄 소재가 보기 드문 전통악기이기 때문이다. 천정의 악기벽화 장엄은 희유한 미증유의 사례다. 실제 몇몇 법당의 천정에서 악기를 그린 벽화를 볼 수 있다.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문경 김용사 대웅전,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양산 통도사 안양암 북극전, 강원도 고성 일주문 천정 등에서 드문드문 보게 된다. 특히 대흥사 대웅보전 천정의 악기벽화는 유례없이 크고 내소사 악기벽화만큼이나 기획적이다. 묘사한 악기 개수도 북, 장구, 해금, 바라, 생황 등 9점이나 된다. 내소사 악기벽화와 비교할 만하다. 하지만 대흥사 악기벽화는 근래에 이뤄진 단청장엄이라는 안타까운 한계를 지닌다. 다른 곳의 악기벽화 역시 내소사 악기벽화의 묘사력이나 예술적 성취도와는 비할 바 못 된다. 내소사의 악기벽화는 그만큼 독보적이고 단연 뛰어나다.

내소사 악기벽화는 대웅보전 좌우협간 우물천정의 격자반자에 현존한다. 좌우 협간 반자 5장씩, 모두 10장에 그려 뒀다. 반자 하나의 평균 크기는 세로 75㎝, 가로 57㎝다. 반자 한 장마다 하나의 악기를 그렸다. 특별히 반자 한 장에는 거문고와 횡적, 두 악기를 한 곳에 그려 넣어 10장의 천정반자에 모두 11종의 악기가 등장한다. 천정반자에 도설한 악기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향좌측(6종): 바라, 나발, 향비파, 생황, 횡적과 거문고
향우측(5종): 장구, 북, 해금, 당비파, 박

전통악기는 원래 '팔음악기'라 하여 우주의 여덟 절기에 대응하는 8가지 재료(쇠, 나무, 가죽, 대나무, 명주실 등)에 따라 악기를 분류했다. 예컨대 동지-가죽-북과 장구, 하지-명주실-해금, 아쟁, 가야금, 거문고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악기의 소리를 우주의 소리로 해석했다. 벽화에선 팔음악기 분류 중에서 쇠로 만든 징이나 편종, 옥돌을 재료로 하는 편경 등은 없다. 내소사 악기벽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사실적 묘사, 둘째는 전통악기의 집합성, 셋째는 진채 묘사다. 그런 점에서 내소사 악기벽화는 전통악기의 교본이나 도감 역할을 한다. 그것도 300년 넘은 진채 도감이다. 한국의 국악 역사에서 최초의 전통악기 컬러 도감으로 비중 있게 평가할 수 있다.

진채로 그린 또 하나의 악학궤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악기도설은 1493년에 성현이 펴낸 〈악학궤범〉에 근거한다. 9권 3책으로 펴낸 〈악학궤범〉의 6, 7권의 '악기도설'에는 악기 모양은 물론이고 각 부분의 치수와 색깔, 재료, 연주법 등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악학궤범〉은 목판본으로 먹으로 찍어내서 흑백이다. 수백 년 전의 전통악기 컬러 도판은 두 가지 조형 형식으로 전해진다. 하나는 불화를 통해, 다른 하나는 벽화 형식이다. 악기만을 그린 진채불화는 없다. 신중도나 극락왕생도, 감로도 등의 불화 속에서, 또는 법당의 주악비천도 벽화 속에서 악기 연주자와 함께 표현한다. 오방색의 진채로 악기도설의 도감 형식으로 표현한 사례는 내소사 악기벽화가 유일무이하다. 그것은 불교미술사에서, 또 국악의 역사에서 주목하고 특기할 만한 의의를 가진다. 진채로 그린 또 하나의 〈악학궤범〉 '악기도설'로서, 진채로 그린 전통 국악기의 향연을 펼쳐 놓았다.

내소사 악기벽화 몇몇은 대단히 사실적이고, 또 몇몇은 대단히 독특하다. 당악용 당비파는 목이 꺾인 4현 악기이고, 향악 연주용 악기인 향비파는 목이 바른 5현 악기다. 벽화에서 당비파 묘사는 '악기도설'만큼이나 정확하다. 현의 개수는 정확히 4줄이고, 목은 꺾여 있다. 향비파는 뒷모습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악기를 표현한 것이지 그 실체가 애매모호하다. 해금의 묘사도 섬세하다. 해금은 활로 현을 긁어 음을 내는 찰현악기다. 현의 수는 벽화의 묘사처럼 두 줄이다. 한 줄은 높은음, 다른 줄은 낮은음을 낸다. 현을 긁는 '활'을 말 그대로 활처럼 그려서 재밌다.

'생황'이나 '박(拍)'의 표현은 인상적이다. 원래 생황은 박이나 나무로 만든 둥근 울림통에 17개의 길고 짧은 대나무 관대를 박아놓고 울림통의 취구에 입을 대고 하모니카처럼 연주하는 악기다. 길고 짧은 대나무 관대의 형상이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형상이라 악기 이름에 '생(生)' 자를 넣었다고 전한다. 벽화에선 죽관은 10개뿐이지만 취구부와 울림통만큼은 대단히 독창적이다. 영락없는 대형 담배 파이프 형상이다. '박'의 표현도 독특하다. '박'은 음악의 처음과 끝을 맡는다. 시작할 땐 한 번 치고, 끝날 땐 세 번 친다. 〈악학궤범〉의 도설에 따르면 박은 나무판 여섯 편을 묶어 제작한다. 그런데 벽화에선 심플하다. 단 두 편의 나무판으로 단순하게 제작한 독특한 모습이다. 가죽으로 만든 장구와 북은 공통적으로 표면에 삼태극 문양을 장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장구를 제외한 모든 악기는 비천의 표대 자락처럼 긴 매듭 장식을 갖췄다. 바람에 나부끼는 매듭 자락은 하늘에서 울려퍼지는 음악의 선율을 시각적으로 환기시켜 준다. 여기서 의문 하나가 남는다. 왜 천정에 연주자 없이 악기를 그렸을까?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는 음악이기 때문이다.

〈정토삼부경〉의 하나인 〈관무량수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극락정토를 떠올리는 제6관 '총상관'을 아난과 위제희 왕비에게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많은 보배 국토 각각의 경계마다 5백억 개의 보배 누각이 있어 그 누각에서 한량없이 많은 천인들이 천상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느니라. 그 악기들은 천상의 보배 깃발과 같이 허공에 매달려 있으며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울리는데 그 소리는 모두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게 하느니라."

또 〈묘법연화경〉의 개경(開經) 격인 〈무량의경〉에선 "하늘 당기와 번기가 세워지고 하늘 일산이 펼쳐진 가운데 건달바들이 하늘의 묘한 악기를 펼치고는 미묘한 하늘의 음악으로 부처님의 설법회상을 장엄했다"는 대목도 보인다. 벽화 속 악기는 하늘에서 저절로 울려퍼지는 음악의 상징으로서 본질적으로는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환희와 예경의 뜻을 담고 있다. 법당에 거룩한 부처님의 진리 설법이 펼쳐지고 대중의 환희지가 벅차거늘 어찌 박 소리가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지 않겠는가. 새 소리, 바람 소리, 꽃이 피는 소리…. 세상천지에 음악이 가득하다.



노재학 작가

